

대한민국 전력수도...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꿈꾸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전남 나주시로 본사를 이전한지 1주년을 맞았다. 한전이 나주에 이전하면서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초광역 혁신도시로 탈바꿈 하고 있다. 한전도 본사 이전을 계기로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미국 실리콘밸리, 일본의 도요타시, 영국의 사이언스파크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분야 특화도시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와 상생 지역발전 견인 =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이 전기관 수(16개)와 이전인원(6763명)이 가장 많다. 이 가운데 현재 14개 기관 6128명이 이전을 완료했다. 가족 등을 포함해 인구수는 최근 1만267명을 넘어서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거시설도 2014년 한전 이전 후 2255호에서 4252호로 두 배가량 늘었다.

한전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하면서 나주시의 올 공시지가 상승률(1~9월)은 4.33%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동구 3.1%, 세종시 2.73%, 원주 2.22% 보다 월등히 높다. 전국 도시 중 올 상반기 전역사용 증가율도 나주시가 9.90%로 전국 평균 1.90%, 서울 1.23% 보다 크게 앞서며 1위를 기록했다.

특히 경북혁신도시(김천) 5.02%, 충북혁신도시(진천) 4.04%, 강원혁신도시(원주) 3.2% 등 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거주인원이 많아 졌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 활성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한전 본사가 이전하기 전 광주전남혁신도시에는 편의시설이 49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



한국전력은 8일 오후 나주 빛가람동 신사옥에서 '빛가람 1년,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란 슬로건 아래 빛가람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조환익 한전사장, 윤장현 광주시장, 우기종 전남도 정부부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신동진 한전 노조위원장 등이 축하 떡 절단식을 갖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주 이전 1주년 기념식...한전 100년의 미래상 그려

77개 기업·4261억 투자 유치·3037명 고용 효과

다문화 청소년·취약 계층 117명에 장학금 사회 공헌도 활발

년 한전 이전 후 114개로 늘었으며 지난 9월에는 389개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버스 왕복도 66회에 불과했으나 172회로 늘었으며 지방세는 9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전이 자체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 96%가 "한전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한전 직원 역시 77%가 "혁신도시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다른 지역 혁신도시보다 발전하고 지역과 융합할 수 있었던 데는 한전의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을 통한 장기적 비전 제시와 광주시와 전남도와의 성공적 협력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대한민국 전력허브, 세계적인 에너지밸리로 만든다는 비전 아래 기업유치→인재육성·유입→지역경

제발전→국가경제 발전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속에 상생 모델을 그려나가고 있다.

한전은 광주전남혁신도시를 대한민국 전력허브, 세계적인 에너지밸리로 만든다는 비전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77개의 기업을 유치해 4261억 원 투자유치, 3037명의 고용효과를 거뒀다.

이는 2015년 50개사 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2016년까지 100개 기업 목표의 77%를 이미 달성했으며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 목표의 15.4%를 달성한 것이다.

또한 세계 최초 전력기술엑스포 'BIXPO 2015'를 개최하고 '에너지밸리센터'를 건립하는 등 광주전남지역을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전력이 나주시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초광역 혁신도시'로 탈바꿈 하고 있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전경'. 광주전남 혁신도시에는 한전이 이주한 후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1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외에 한전은 본사를 나주혁신도시로 이전 후 탁월한 경영성과로 글로벌(Global Local)기업으로서 성공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지속된 적자를 극복하고 2013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2014년에는 순이익 1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에도 흑자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전은 지난

10월 말 S&P로부터 기존 'A+' 등급에서 1단계 상향된 'AA-' 신용등급을 부여받아 글로벌 전력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AA' 등급을 부여받은 회사로 등극했다.

▲지역민과 행복한 동반자 관계=한전은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의 공유 가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본사 이전에

따른 지역민과의 행복한 동반자 관계 조기 정착을 위해 1차 1촌 자매결연을 추진해 36개 처실과 36개 마을 자매결연을 맺었다. 또한 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 모국 방문 행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 차세대글로벌 리더 성장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전력 꿈나무 양성을 위해 광주 전남지역 취약계층 초·중·고등학생 117명에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해외 전력사업 지지 기반 조성을 위해 대학생 해외봉사 활동을 지원해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태양광모듈 및 가로등 설치, 과학교실을 운영 했다.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생 육성을 위해 이전기관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와 '광주·전남 7개 주요대학교와 지역 인재양성 및 연구 MOU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옥상 태양광 설치, 심야난방 교체 지원, 나주 변전소 옥내외(224억원), 철탑 개선 등 설비 친환경 경 추진, 치매 독거노인 위치 확인 서비스로 사회안정망 구축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외에 사옥 공간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사육 견학과 문화공연, 본사 직원 지역탐방행사를 통해 문화체험과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현희기자 lion@kwangju.co.kr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시청 10분거리
- 도로 교통망 최고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선착순 동, 호수지정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편리한 교통편

문의 062 383-6400